

# 참다운 신앙자들은 모두 양문회에게 귀의해 따랐다

## <54> '근대불교의 아버지' 양문회(楊文會)거사

당·송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국불교는 명대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명맥만이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쇠락했던 불교는 청말에 발생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1851~1864)으로 인해 다시 존폐의 위기에 이르렀다. 중국번(倭國藩)의 <토월비적(討粵匪檄)>(1854년 2월)에서 태평천국교도들이 "군현(郡縣)을 지나치면서 먼저 묘우(廟宇)를 불사르고... 불교의 사찰, 도관(道觀), 성황당, 사단(社壇) 등의 모든 묘사(廟舍)가 불타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각 상(像)들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서술했듯이 태평천국교도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불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태평천국교도들이 점령했던 곳이 안휘(安徽), 강소(江蘇), 절강(浙江), 호북(湖北), 강서(江西), 복건(福建) 등 중국역사에서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지역이었던 까닭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양문회(1837~1911) 거사이다.

양문회 거사는 안휘성(安徽省) 석태(石埭)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인산(仁山). 그의 부친은 중국번(倭國藩), 리홍장(李鴻章)과 같은 해에 진사(進士)에 합격했던 경력으로 당시 최고위층과 밀접한 친분을 맺고

1865년, 거사는 부친과의 인연이 깊은 중국번·이홍장이 금릉(今 南京)에 금릉기기구(金陵機器局)를 건설하자 그 공사의 책임을 맡았다. 양문회 거사는 남경에 도착해 왕매숙(王梅叔), 정학천(鄭學川), 위강기(魏剛己), 조경초(曹鏡初) 등과 함께 불교를 연구하다가 "말법세계를 위해 온전한 경전을 유통시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견을 모아 수십 명을 결집해 각경(刻經)의 사업을 구상했다. 이듬해인 1866년 양 거사는 왕매숙, 정학천, 위강기, 조경초 등 10여인을 규합해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를 설립했다. 이후 '금릉각경처'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사라진 불전보급 등 중국의 근대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전을 판각·출판하고 있다.

양문회 거사는 1878년부터 청조(淸朝)의 외교관을 유람을 순방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옥스포드대에 유학하고 있던 난조분유(南條文雄)와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됐다. 이로부터 거사는 근대적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고, 또한 이들의 교류로부터 중국에서 이미 산실된 여러 문헌들, 예를 들어 담관(曇鸞), 도자(道忞), 선도(善導) 등의 저술과 규기(藕益)의 <성유식

사의 저술을 모은 <양인산거사유저(楊仁山居士遺著)>(전10책)에 따르면, "낮에는 각경 과정을 감독하고 밤에는 불교를 공부함에 몰두했으며, 교감과 각인(刻印) 이외에 혹은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고, 혹은 정좌해 작관(作觀)하기를 자주 밤을 새웠다"라고 적었다. 거사는 만년에 오로지 각경처 일에 전념해 100여 만 권의 경전을 유통시켰고, 10여 만 장의 불상을 인쇄했다.

양계초(梁啟超)가 전술한 <청대학술개론(淸代學術概論)>에서 "만청(晚淸)시기에 이른바 신학가(新學家)라는 사람들은 거의 불교학과 관계가 있었고 불교의 참다운 신앙자들은 양문회에게 귀의해 따랐다"라고 평하듯이, 거사가 단순히 불전의 각경과 보급에만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3000년 이래 없었던 격변의 시국'으로 표현되는 서구 열강의 침탈과 서학(西學)의 전래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민족의 최대 위기'로 인식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을 모두 불교로부터 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양문회 거사의 영향이었다.

거사의 불교사상은 초발심의 계기였던 <대승기신론>(이하 <기신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거사는 <기신론>은 으뜸 되는 가르침을 원음해 불교를 배우는 요전(要典)이고 불교를 배우는 강종(綱宗)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신론>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해 <기신론>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모두 파악해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서로 보고 있음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기신론>은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원음으로 모든 대승의 교의를 회통하고 있는 논서이다. 양문회 거사 역시 <기신론>을 근간으로 중국불교에 출현한 거의 모든 종파를 통섭했다.

양 거사는 난조분유에게 <기신론> 범본(梵本)의 존재를 물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큰 실망을 했다. 양문회 거사는 "만약 <기신론> 범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필시 위서(僞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각경(刻經) 원칙으로 세운 '삼불각(三不刻)' 가운데 '의서(疑書)나 위서(僞書)는 판각하지 않음(有疑僞者不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사는 지속적으로 <기신론>과 그와 관련된 전적을 출판했다. 더욱이 1894년, 상해에서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와 함께 <기신론>을 영역해 중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거사가 품은 민족불교의 사상적 경향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사는 결국 <기신론>의 범본이 없음을 인정했고, 그것이 중국전승이라는 가능성을 도리어 중국불교의 특색을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했기에 그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사의 민족정신이 가득 담긴 불교사상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양계초를 비롯해 장태염(章太炎), 당사동(譚嗣同), 강유위(康有爲), 양수명(梁漱溟) 등 근대의 개혁사상가들은 거의 모두 거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채원배(蔡元培)는 1900년에 <불교도국론(佛敎護國論)>을 발표했다. 그



가 전개한, 불교만이 질곡에 빠진 중국을 구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양문회 거사의 민족주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사가 설립한 '기원정사'에서 수학한 이들은 태허(太虛), 인산(仁山), 개오(開悟), 지광(智光), 관동(觀同) 등 스님을 비롯해 거사로는 구허명(邱虛明), 사무량(謝無量), 구양점(歐陽漸), 옥양(歐陽寬), 매광희(梅光羲) 등이 있다. 기원정사 출신인 이들은 모두 근대중국불교의 중심인물들이다. 거사의 <담명(塔銘)>에는 "말법(末法)이 창망(滄茫)하고 종풍(宗風)이 마르고 끊어진 시대를 맞이해 떨치고 일어나 몸은 도에 맡기고, 논사(論師)·법장(法將)·장주(藏主)·경방(經坊)의 네 가지 일을 과감하게 겸하고, 삶을 마칠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쓰여 있다. 이로부터 거사의 일생을 총

분히 엿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업적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즉, 양 거사는 '논사'로서 끊임없이 불교를 연구하고 전술했으며, '법장'으로서 당시의 추락한 불교계를 개혁했다. 또한 '기원정사'와 '불학연구회'를 개설해 친히 강의를 담당했다. 또, '장주(藏主)·경방(經坊)'으로서 '금릉각경처'를 세워 수많은 불전을 편집해 각경·출판·유포시켰다. 이러한 거사의 노력은 쇠퇴한 중국불교를 다시 부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위기에 처한 중국의 상황을 불교의 사상과 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조를 나타나게 했다.

바로 '민족불교'이다. 그에 따라서 후인들은 거사에게 '근대불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중국불교의 특색을 부각시키려 노력

### 민족정신 담긴 불교사상으로 중국불교 부흥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사는 어려서부터 명리를 싫어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거사의 손녀가 전술한 <선조 인산공의 생애(先祖仁山公之生平)>에 따르면, 거사가 불교에 귀의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나이 3세에 부모가 정해진 약혼녀가 결혼하기 전에 천연두에 걸려 얼굴이 흉하게 됐지만, 거사는 아무 반대 없이 일찍 결혼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난으로 항주(杭州)에 피난했던 거사는 그곳에서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양 거사는 그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으려 했지만 완강한 집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거사는 모든 일에 회의를 느끼고 매일 서호(西湖)를 산책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사서 읽고는 크게 감탄해 불교에 전념했다고 한다.

문술기(唯識論述記), 법장(法藏)의 <대승기신론의 기(大乘起信論義記)> 등 '500년 이상' 중국인들이 볼 수 없었던 중요한 전적들을 역주하는 계기가 됐다.

1889년, 거사는 외교관 생활을 그만두고, 금릉각경처에서 오직 불교경전 간행과 후학의 지도에 몰두했다. 1911년 음력 8월 17일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기 며칠 전 양문회 거사는 75세로 입적했다.

거사의 업적은 간략하게 불교전적의 각인(刻印)과 보급을 담당하는 '금릉각경처'의 설립과 운영, 불교 교의에 대한 체계적인 강론을 위해 각경처 내부에 개설했던 '기원정사(義源精舍)', 불교의 심화연구를 담당했던 '불학연구회(佛學研究會)', 다양한 국제교류의 실행 등이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토대가 됐던 것은 바로 금릉각경처 설립과 운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보급 없이는 교육이나 학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

#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착취탈 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계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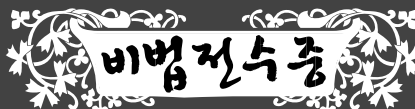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집일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빌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